

미누코 🌐  
@lammnuco

...



## 채권시장이 미국 정부를 길들이는 중

0 t 5 1.4K ↗

빵집 마을에서 발견한 돈의 이상한 줄다리기

마을 금고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

빵집 마을 김은행 아저씨가 아침부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.

← Article ↗

센텐 악국 사장이 관심을 보였다.

"돈을 빌리는 비용이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설명했다.

"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말이에요. 4월에 갑자기 확 올랐다가, 최근에 다시 내려왔는데, 며칠 전에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."

카페 사장이 의아해했다.

"정부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핵심을 짚었다.

"여기서 이상한 게, 이자를 정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."

첫 번째 질문: 누가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가?

빵집 사장 민우가 궁금해했다.

"정부가 돈을 빌리는 이유?"

← Article ↗

김은행 아저씨가 시장 원리를 설명했다.

"정부가 제시한 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안 사죠. 그러면 정부가 이자를 더 올려야 해요."

결국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"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빌려주겠다"고 정하는 것이다.

[이런 구조를 경제에서는 '채권시장'이라고 부른다]

← Article ↗

몰리나 의료기기점 사장이 이유를 궁금해했다.

"그런데 왜 4월에 갑자기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.

"4월에 미국이 관세를 크게 올린다고 발표했거든요."

관세 발표가 만든 연쇄 반응:

- 관세 올림 → 물건값 상승 → 인플레이션 우려
- 인플레이션 → 돈의 가치 하락 → 같은 이자로는 손해
- 따라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

센텐 악국 사장이 이해했다.

"그럼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,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한 거네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확인했다.

"정확해요.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, 미국 정부가 빌리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니깐요."

← Article ↗

세 번째 질문: 정부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릴까?

카페 사장이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.

"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미국의 현실을 설명했다.

"미국 정부가 1년에 쓰는 돈과 거둬들이는 돈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오."

미국 정부의 수입과 지출:

-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돈: 1000이라고 하면
- 실제로 써야 하는 돈: 106
- 부족한 6은 빚으로 메워야 함

빵집 사장 민우가 문제점을 지적했다.

"그럼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네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딜레마를 설명했다.

"맞아요.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워요."

← Article ↗

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역사적 사례를 설명했다.

"과거에 영국,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. 투자자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정부가 큰 곤경에 빠졌죠."

다섯 번째 질문: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?

센텐 악국 사장이 대응책을 궁금해했다.

"그럼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정부의 고민을 설명했다.

"최근 몇 달 동안 정말 세심하게 시장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"

정부의 시장 달래기 전략:

← Article ↗

최근의 작은 사건들:

- 정부가 장기체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만 나와도 이자 급등
- 관세 정책 관련 재판 소식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
- 작은 변화에도 즉시 이자율이 요동치는 상황

[방금 본 이런 상황을 경제에서는 '불안한 균형'이라고 부른다]

여섯 번째 질문: 이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?

← Article ↗

김은행 아저씨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.

"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."

핵심 모순:

- 정부는 계속 많은 돈이 필요함 (AI, 국방, 복지)
- 하지만 빚은 이미 너무 많이 쌓아 있음
- 투자자들은 점점 더 높은 이자를 요구
- 이자가 높아질수록 정부 부담은 더 커짐

과일가게 사장이 약순환을 정리했다.

"결국 빚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야하는데, 이자를 많이 내느라 빚이 더 늘어나는 구조네요?"

김은행 아저씨가 딜레마를 확인했다.

"정확해요. 그래서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"

← Article ↗

이제 마을 사람들은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.

"미국 국채 금리 상승" 뉴스를 보면 "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"라고 생각할 것이다.

"채권시장 안정화 조치" 뉴스를 보면 "정부가 시장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구나"라고 생각할 것이다.

개별 금융 뉴스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간의 심리전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.

앞으로 재정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떠오를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.

"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신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"

← Article ↗

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?

[Upgrade to Premium](#)

5:56 PM · Dec 29, 2025 · 1,415 Views

← Article ↗

그리고 생각할 것이다.

개별 금융 뉴스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간의 심리전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.

앞으로 재정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떠오를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.

"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신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"

← Article ↗

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?

[Upgrade to Premium](#)

5:56 PM · Dec 29, 2025 · 1,415 Views

← Article ↗

이제 마을 사람들은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.

"미국 국채 금리 상승" 뉴스를 보면 "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"라고 생각할 것이다.

"채권시장 안정화 조치" 뉴스를 보면 "정부가 시장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구나"라고 생각할 것이다.

개별 금융 뉴스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간의 심리전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.

앞으로 재정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떠오를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.

"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신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"

← Article ↗

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?

[Upgrade to Premium](#)

5:56 PM · Dec 29, 2025 · 1,415 Views